

순천서 세계로 뻗은 목소리, 일본 오사카서 빛났다

바리톤 김중권, 국제콩쿠르서 1위 없는 2위 올라
무대경험 바탕 기량 발휘... 지역 클래식 저변 확대도

“이번 오사카국제음악콩쿠르 입상은 오랜 시간 이어온 노력과 도전을 돌아보는 뜻깊은 계기가 됐습니다. 바리톤으로서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스승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남광주 순천 출신 김중권 바리톤이 최근 ‘제27회 오사카국제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한 뒤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국내외 무대를 통해 쌓아온 연주 경험과 음악적 역량을 선보이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그가 출전한 부문에서는 1위 수상자

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2위에 오르며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오사카국제음악콩쿠르는 지난 2000년 창설된 국제 종합음악경연대회로, 성악을 비롯해 피아노·현악·관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음악인들이 기량을 겨룬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태국 등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예선이 진행됐다. 순천에서 태어나 성장한 김중권은 어린 시절부터 성악에 두각을 나타냈다. 호남예술제 최고상과 청소년문화예술제 KBS콩쿠르 대상을 수상하며 재능을 인

정받았다. 이후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움베르토 조르다노 국립음악원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마쳤다.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아와 페스카라 국제성악학교 최고연주자 과정, 로마 치비카 음악학교 합창지휘 과정 등을 거치며 음악적 역량을 쌓았다. 국제 무대에서의 수상 경력도 풍부하다. 스위스 국제콩쿠르와 미국 김스피크 국제콩쿠르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이탈리아 알레산드리아 국제콩쿠르에서는 1위 없는 2위에 올랐다. 로마 카푸트 문디 국제콩쿠르와 페루자 아르모니카 국제콩쿠르에서는 각각 3위를 수상했다. 오페라 무대에서는 ‘카발레리아 루스타카나’, ‘세비야의 이발사’, ‘코지 판 투테’,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돈 조반니’ 등 다양한 작품의 주요 배역을 맡

았다. 최근에는 창작오페라 ‘용아’에서 영랑 역으로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올림팩토리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예술인들과 클래식 공연 및 문화예술 사업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바리톤 김중권과 함께하는 가곡의 밤’과 ‘가야문화권 교류음악회’를, 지난해에는 ‘클래식으로 떠나는 유럽여행’과 ‘클래식 드림콘서트’ 등을 선보이며 지역민들의 클래식 음악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 그는 “고향 순천에서 음악을 시작해 이탈리아 유학과 국제무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과 가르침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국내외 무대에서 진정성 있는 음악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순천 출신 김중권 바리톤이 최근 ‘제27회 오사카국제음악콩쿠르’에서 음악적 역량을 선보이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6 산학협력력 EXPO

초당대 김가영 학생, 사진영상 우수상 수상

초당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중인 김가영 학생이 최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6 산학협력력 EXPO’ 앵커루트+에서 사진영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 ‘지역과 인재’를 있는 산학연, 미래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주제로 열렸다. 전국 362개 기관이 참여했다.



앵커루트+는 전국 대학의 우수 학생들이 삼성전자, 대한항공, IBK기업은행, KBS 등 주요 기업 36여 곳의 면접위원 앞에서 공개 모의면접을 치르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사전 면접영상 심사를 거쳐 본선 무대에 오른다. 김가영 학생은 아쉽게 본선 진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강점과 직무 역량을 담아낸 사전 면접영상의 완성도를 높이 평가받아 사진영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가영 학생은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

과 함께 경쟁하는 자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사전영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과 학교 동기들의 응원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초당대 앵커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참관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실전 면접 분위기를 체험한 만큼,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이 앵커루트+ 본선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전영상 제작과 면접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기자 leek2123@

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5급 승진 △행정운영국 운영지원과 강주호 △완도교육지원청 김근석 △행정운영국 운영지원과 김기훈 △미래성장국 학령인구정책과 김덕중 △여수교육지원청 김미란 △행정운영국 재무관리과 김미란 △행정운영국 운영지원과 김봉규 △미래성장국 노사안전과 김성근 △미래성장국 노사안전과 김태호 △행정운영국 예산과 김해균 △홍보담당관 김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배호영 △감사관 서유진 △감사관 선일 △하의 고등학교 안현진 △성전고등학교 오상현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이은석 △감사관 이해영 △인재교육국 유아초등교육과 이희정 △행정운영국 운영지원과 조종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교육연수원 최정환 △행정운영국 행정과 홍동균 △기획조정실 조직기획담당관 황혜영 (이상 교육행정) △감사관 홍정수 (사설) △미래성장국 글로벌미래교육과 송대욱

한마음교류대회 500여명 참여 강연·세미나·유공자 표창 등

전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여수에 모여 장애인 권리 보장과 복지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제33회 전국 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 개최하고 통합특별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장애인단체 임원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권리 보장과 복지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세미나에서 주요 현안을 살피고 의견을 나눴다. 지역별 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제33회 전국 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를 개최했다.

확대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했다. 참석자들은 교류 프로그램과 2026 여수세계계섬박람회 관람에

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광선 통합특별시 돌봄복지국장은 “이번 대회가 전국 장애인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계기

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는 장애인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산구, 반도체 미래산업도시 도약 다짐

구민의 날 기념식... 시민대표 35인 헌장 낭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제35회 광산구민의 날을 맞아 시민의 빛을 모으는 행위(퍼포먼스)로 반도체 미래산업도시 도약을 다짐했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전남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시민과 함께 있는 광산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제35회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기념식은 의견을 줄이고 시민 참여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념식에서는 식전 공연과 시민들이 꿈꾸는 미래를 담은 주제 영상, 시민대표 35인의 구민헌장 낭독, 광산구민상 시상 등을 진행했다.

제35회를 상징하는 시민대표 35인은 청소년·마을활동가·노동자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무대에서 구민헌장을 함께 낭독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광산의 미래를 향한 다짐을 전했다. 미래 비전 공연(퍼포먼스)에서는 객석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빛이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민대표 35인에게 이어졌다. 다섯 단체의 불빛이 차례로 모여 반도체 웨이퍼 형상을 완성하며, 시민의 힘으로 반도체 미래산업도시를 만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역 발전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시



광산구는 20일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시민과 함께 있는 광산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제35회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민 9명에게는 9개 분야의 광산구민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스니눔·봉사 임영우 선한기업100+원탁회의 이사장 △효행·복지 박미하 신흥동 주민 △자치공동체 박원철 어룡동 주민자치회장 △문화·예술·체육 오동근 광산문화원장 △학술·교육 박상

철 호남대학교 총장 △지역경제 김용구 현대하이텍 대표이사 △산업기술 윤성식 ㈜세아씨엔티 대표이사 △안전증진 김동순 광산구약사회장 △안전·환경 한은희 수완에너지전환마케팅네트워크 운영위원이다. 임정호 기자 ijh441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자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모집

영어일시보호호소, 문의 062-222-1095-1096. △구당침·뜸 수강생=가죽진단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품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ონსე (음력 9월 12일)

쥐

48년생 지혜와 노력 덕에 재물이 있을 것
60년생 의욕이 없으니 쉬었다 다시 시작하자
72년생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 생기 넘친다
84년생 문서 관련 일은 매사 조심할 때
96년생 문제를 직접 접해보아 얻는 바가 있다

토끼

51년생 과욕을 부리면 지인과 원수가 될 수도
63년생 지인의 말 한마디에 큰 이익을 얻는다
75년생 직장에서 분주하지만 소득이 없다
87년생 가족과 일을 도모하면 성공할 것이다
99년생 지금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져라

말

54년생 아랫사람과 금전 관계로 감정 상한다
66년생 작은 흠결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
78년생 금전을 활용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90년생 사랑이 맺히지 집안에 경사 따른다

돼지

57년생 강한 성격 드러내면 주변이 시끄럽다
69년생 관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라
81년생 금전 문제에서는 아집과 편견 버려라
93년생 혼자 결정 말고 의사들과 상의하라

소

49년생 문서 때문에 구설에 오른다
61년생 손아랫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한다
73년생 기회가 찾아오면 재빨리 잡아라
85년생 잃었던 것 다시 찾고 막혔던 길 트인다
97년생 실속 없이 동분서주하는 날

물

52년생 금전 문제 현상 유지만 해도 선방이다
64년생 길흉이 교차하면서 금전 지출 크다
76년생 재물과 문서에 즐거움이 있다
88년생 정직한 마음을 지키면 이익 얻는다

양

55년생 자녀 때문에 몸도 마음도 바쁜 날
67년생 친분과 신용은 다르다는 것 알아라
79년생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잡아라
91년생 연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마라

개

58년생 새 투자는 잘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하라
70년생 손아랫사람 때문에 중심이 흔들린다
82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미흡하다
94년생 이성 문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호랑이

50년생 금전을 과도하게 쓰면 부작용 넣는다
62년생 문서로 인해 참체된 일에 활력 생긴다
74년생 직장에서 인심을 얻는다
86년생 충고가 귀에 거슬려도 도움이 된다
98년생 소꿉친구를 만나 웃음꽃 피운다

팬

53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주의하라
65년생 마음을 넓게 갖고 눈높이를 낮춰라
77년생 습관이 결집되어 돼 타격을 줄 수 있다
89년생 금전적 이익을 위해 몸을 아끼지 마라

원숭이

56년생 길에서 사고를 주의하라
68년생 요령보다 원칙을 따를 것
80년생 친구의 성원이 발전의 촉매제가 된다
92년생 꽃이 향기로우려 벌과 나비가 쉬어간다

돼지

59년생 효과가 배가하는 특별한 상황 온다
71년생 부동산 이익보다 미래 보는 안목 필요
83년생 배우자와 관련된 일이 해결된다
95년생 주관적인 심리를 절제해야겠다